

2011.11.08 미래정책연구실

□ 태국, 홍수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 전망**1. Reuters(2011.10.28) 주요 내용**

- 태국은 지난 7월 25일부터 계속된 10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인해 현재까지 전체 농경지의 12.5%에 이르는 160만 ha가 침수됨. 또한 태국 정부는 새로 침수되는 면적이 계속 늘어나 전체 농경지의 25%인 250만 ha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.
 - 올해의 쌀 생산량은 당초 예상치인 2천 500만 톤에서 600만 톤 감소한 1천 900만 톤으로 전망됨.
 - 국제 곡물시장 관계자들은 태국의 홍수가 진정되면 국제 기준가인 태국 B등급 백미의 가격은 34% 이상 상승하여 톤당 850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함.
- 쌀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인도네시아 등 주변 쌀 수입국들은 비상이 걸림.
 - 인도네시아 무역장관인 기타 위르자완(Gita Wirjawan)은 “태국으로부터 예정된 쌀에 대한 수출 불가 통보를 받아 인도와 파키스탄 등 다른 수입처를 모색하고 있다”고 주장함.
- 태국은 세계 쌀 거래량의 30%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으로, 쌀 생산량 감소 전망은 아시아 지역에 식품 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됨.
 - 홍수피해는 주요 쌀 수출국인 베트남, 캄보디아, 라오스 등 태국인근 국가들로 확대되어 세계 쌀 시장에 주는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.
- 태국 정부는 이번 홍수로 파종을 위해 저장해 놓은 종자가 유실되고, 침수된 농경지 복구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내년도 쌀 생산에 대해 우려함.